

# 69년도 과학기술전망의 방송대담

일시 1969년 3월 26일 14.00시

장소 문화방송국 대담실

대담자	과학기술처 장관	김기형
사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김윤기
	방송국 아나운서	

사회: 科學은 우리들의 生活을 날로 便하게 하고 있고, 우리들은 또 이 文明化 된 社會에서 살면서 나날이 발전하는 科學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좀 더 참되게 하고져 苦心하고 있습니다. 오늘 科學技術處長官 「김기형」씨와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회장님 「김윤기」씨를 모시고 우리나라의 69년도 과학기술진흥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問題視하고 있는 69년도 과학기술진흥계획이 아주 다채롭게 짜여졌다고 들었는데 알기 쉽게 좀 소개 해 주십시오.

김기형 장관: 69年은 70年代로 向한 기초기간의 完成기간이라고 規程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기간의 도약(跳躍)을 위해서 어떠한 基礎가 되어 있는나? 하면은 脚光을 받을 만한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흥능」에 近 60억원을 들여서 동양에서 제일가는 韓國科學技術研究所라는 것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 가을에 완공이 됩니다. 이러면은 여기에 있어서의 海外에 계시던 유명한 과학기술자들을 대폭 귀국시켜서 여기에서 우리의 산업개발을 우리의 과학기술을 갖다가 세계 수준으로 일으키는 그 원동력이 되게 하는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천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덕산과 양자산 둘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여기에다 4인치 망원경을 실제로 갖다놓고 시위계정에 새로운 器機를 같이 동원시켜서 예비관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예비관측이 끝나면 어느 것이 좋으나? 를 결정할 다음에 여기에다 최신키 천문대를 來年에 놓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사회: 천문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우리가 신라때 첨성대를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 놓은 나라인데 천문대가 아직도 없다는 것이 아이로니컬 하게 느껴지는 그런 얘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김기형 장관: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처가 근대국가로서 체면상 천문대가 없다는 것이 체면이 안 서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문대가 장식용이 아니라 현재 近代國家가 활동하는데 꼭 必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세워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작년에 여러가지 — 날씨가 이상스러워서 국민들이 — 많은 고생을 당했습니다. 금년에는 이와 같은 기상예보를 정확히 하기 爲해서 경기도 관악산에 「기상레이다」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今年 6월에 완성되어서 농경기에 들어 갈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많은 配慮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일으키는 根本的인 원동력은 우리자신이 研究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今年에도 벌써 1억 3천만원에 對한 研究用役費, 보조금을 確定시켜서 全國에 연구기관 大學에서 6백餘件을 받은 중에서 特히 41件을 精選을 해서 여기에 對해서 원조를 시작했습니다. 기타 우리나라가 先進國家를 따라 가려면 本대를 가지고, 주판을 가지고 計算을 하던 時代에서 좀 새로운 器具를 가지고 모든 事務處理를 한다. 또는, 思考를 한다. 또는 計算을 한다. 이런 것을 電子計算器를 使用하는 그러한 國民的運動과 統制, 또는 要員의 養成을 하겠습니다. 今年에 한 2백명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資源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地上에 있는 것만을 주로 해왔는데 今年에는 바다 속을 開發하는 海洋開發을 하는데 注意力을 두어서 시작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21일에는 전국에 科學技術을 일으키는 하나의 重要한 행사인 科學의 날을 맞이해서 온 국민이 科學 할 수 있는 即 科學을 生活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사회: 그리고요 67年度에서 86年度까지 長期綜合計劃을 마련 하신것 같은데 그 종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骨字를 말씀 해주세요.

김기형 장관: 우리나라가 近代國家가 되고 民族의 中興을 하려면 그 原動力이 科學人의 技術입니다. 그래서 1980年代까지는 우리의 目標을 어디다 두었느냐 하면 世界의 工業國家가 많은데 거기에 中進國의 上位인 即 美國이나, 美國 다음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다음을 따라 가고 있는 線에다 目標을 두어 가지고 우선 그 戰略의 分野를 集中的으로 원조를 합니다. 우리의 財政이 결국 모자라니까 선택을 重要한데다만 두어서 밀어올리겠습니다. 예를들어 무슨 分野냐? 하면 가령, 電子工業, 窯業工業, 食品加工, 기타 化學工業, 석유

같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러한 工業分野를 重點的으로 開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뜻은 技術을 끌어 올리는 抵抗力이니까 이것이 잘되면 다른것도 全般的으로 따라 오다가 그러한 契機가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이제 第3次 經濟開發計劃에 全的으로 反映이 되어 거기에 豫算이 배정 되어서 온 국민이 한 명어리가 되어서 여기에 努力을 계속하면 日本이 近來에 科學國家에 들어서는데 백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2십년 以內에 따라 붙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決議가 年회에 포함 되어진것입니다.

사회: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電子科學에 對해서, 先進國에서는 이미 電子를 活用해서 電子時代라고 할 만큼 電子科學이 발달되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電子科學 時代라고 할만큼 우리 生活에 電子科學이 利用될때는 과연 언제쯤 될것인지 궁금한 일인데요?

말씀 해 주세요.

김기형 장관: 그걸 우리 目標로서는 80年代로 보고 있지만 日本에 「트란지스터」를 저렇게 개발한 歷史가 10年內에 찾아 볼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같이 과학혁명 시대가 되어서 남의 나라가 오랜 세월을 걸려서 開發한 것을 우리는 「국제기술협력」을 통해서 아주

단시일에 갖다가 그 사람들이 겪고온 試練, 또는 경험을 한꺼번에 마스터 해서 그 基礎 위에서 增進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先進國을 빨리 따라 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 電子工業 같은 것도 그러한 例가 아니겠습니까? 即 말하자면 여러가지 세계 각국에서 경험, 제품이 나온 것이니까, 우리가 직접 갖다 놓고 分析해 보면 그 사람이 到達한데서 부터 바싹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爲하여 이번에도 우리 科學技術研究所에다 4천 2백만원이라는 돈을 주어서 電子工業開發研究를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機會



에 또 數千萬 원을 주어업 가지고 이 산 개발을 중점적으로 우선 近代化 할 수 있는 方向으로 지원을 하라하는 이러한 지시를 했습니다.

사회: 研究費 支給에 關해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 주는 研究費 額數를 가지고 과연 科學者들에게 어느 정도 마음 놓고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一般的으로 참 궁금한 일입니다.

김기형 장관: 솔직히 말해서 研究費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이 너무 딸리고, 또 우리 自主國防, 道路, 항만, 電力 등에 間接投資가 많이 들어 가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우선 充足시키는 것을 前後해서 이제 科學技術도 事實, 一種의 間接投資에 가까운 것입니 다만은 이것을 全的으로 投資를 해주어야 하겠다 하는 이러한 단계가 오는데, 이럴때에 우리 科學技術者들이 사전준비를 안하면 아무리 국가가 많은 投資를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科學技術處는 그와 같은 國家가 시책을 주었을 때 받아 들일 수 있는 地盤, 即 저력을 지금 마련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이상은 69年度 科學技術振興을 爲한 科學技術處長官 「김기형」씨의 말씀 이었는데요, 다음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會長으로 계시는 「김윤기」장관님에게 말씀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단체 회장이라면 一般단체에서 나와야 할 것인데 장관님께서 直接 會長을 맡고 계시니 더욱더 의의가 깊은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김윤기 회장:** 방금 科學技術處長官 「김기형」 박사님으로부터 今年度의 다채로운 과학기술 진흥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全國에 科學技術者를 代理해서 호뭇한 感이 있고 참 고마운 생각이었습니다. 아까 과학기술연구비가 적지 않느냐?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며, 앞으로 더 많이 確保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과학기술단체가 지금 가입된 것이 96個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理學方面, 아까 말씀드린 天文學會라든지, 地質學會, 數學, 物理學會라든지 全部다 加入이 되어 있고, 또 工學에 있어서 電氣, 土木, 機械, 建築, 化學, 工學, 電子等等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農水産方面에는 林學會, 作物學會, 園藝學會라든지 等等이 다 들어 있고요. 또 보건단체에는——의 학협회, 약학회라든지 등등이 이런 단체로서 96個 단체가 加入되어 있어요. 會員이 5만2천명이나 됩니다. 그런 것을 잠깐 소개 말씀해 드리고 저희 단체는 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이라는 雜誌를 현재 내고 있어요, 또 금년에는 「과학기술처 장관」이 화보를 내면 어떠냐? 그래서 준비가 되어서 과학기술화보——一般國民의 生活의 科學化——이런 것을 설정, 제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科學의 날」에 「전국과학기술자대회」를 열겠습니다. 그 때에 과학기술자에 對한 시상, 또, 「과학기술처」에서도 상금이 나오니 합시다만 저희 聯合會로서도 우수하고 공적이 현저한 과학기술자에 對해서 무엇인가 한가지 드리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국민에게 과학기술에 對하여 선전계몽에 주력을 하고 96個나 되는 각 산하단체를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協助하는 그런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과학기술단체 하면 단체의 性格을 어떻게 띄고 資本金같은 것을 얼마를 가지고 研究하고 개발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한데, 대개 어떻습니까?

**김윤기 회장:** 각 學會는 學會대로 全部다 雜誌도 내고 여러가지 會합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講演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國內 科學技術界의 動向이 어떤가? 全體의 世界的으로 科學技術動向이 어떤가를 綜合해 가지고 結局 했습니다. 역시 科學技術處長官이 여러가지 정책을 세우고 계신데 과학기술자가

총 단결을 해서 조국의 근대화나 민족의 中興에 이바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점에 심부름을 하고 있고 연락하고 도와 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조금이라도 기금을 모아서 회관 하나 마련 해서 全學會가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 연락도 하고 잘해보자 하는 것음 또 하나의 사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 96個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대개 예를 들어서 한가지 水資源開發이라든 그 수자원 개발에 대한 것을 어느 단체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산개발공사」라든가 이런데다가 資料를 제공해 가지고 그 개발을 돕는 것이겠조?

**김윤기 회장:** 「수자원」하면 「수문협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會長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수자원에 對한 물(水)에 對한 관계 있는 것을 모아서 「물」이란 雜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 하고 이를 一般國民에게도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회:**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더욱 더 협조와 많은 연구를 하여 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못지 않게 빠르게 뒤떨어진 科學部門에서 만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김윤기 회장:**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학기술처장관님은 이 기회에 국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기형 장관:** 예, 감사 합니다. 21세기는 과학기술 시대입니다. 기기에 올라 가는데 준비한 기간이 우리한테는 30년 밖에 안났었습니다. 과학기술이 후진하는 나라는 후진국이니가, 우리가 이제대 民族中興을 할려면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오르지 않고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천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걸 生活化하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전에도 무역확대회의에서 「대통령각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품 하나, 단추하나 꾸미는데 그런데서 좀 세심하게 세계 일류를 만들려는 준비가 必要한 것입니다. 그럴려면 공부를 해야하고 경험을 쌓아야 하고, 기술을 배워야 하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잘 할 길이 없었느냐? 이런 것은 공장에서 해결되고 學校에서도 가르쳐 줘야 되고 大學에서도 그것을 學問的原理, 科學的見地에서 분석해줄 은 국민의 협동이 必要합니다. 卽 말하자면 우리 정부는 정책을 세우고 전반적으로 다루어 오겠지만 실천은 국민 각자 각자가 해줘야 과학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生活를 내 집안에서 科學하고 있느냐? 내가 길을 걸을 때 生活하고 있느냐? 會社에서 일 잘하고 있느냐? 科學的으로 일하고 있느냐? 이렇게 좀 당부하고 명심해 주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회:** 감사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